

# 구성원소 이론으로 보는 한국어 ‘ㄷ’ 불규칙의 음운현상

エレメント理論で見る朝鮮語 ‘ㄷ’ 変則の音韻現象

심보 토모코  
新保朝子

朝鮮語의いわゆる‘ㄷ’変則活用では、語幹末の子音/ㄷ/[t,d]が母音で始まる語尾の前で/ㄷ/[r]に変化する音韻現象が見られるが、語幹末に/ㄷ/がありながら変則が起こらない用言もある。本稿ではエレメント理論をもとに、[t,d]が[r]に変化する現象を、すべての言語に普遍的に適用される仕組みと照らし合わせて解析する。まず、[t,d]は内部構造として[r]と同じ構成要素を持っているため、弱化の結果が必然的に[r]になることを示す。また、弱化を起こす環境は音節の強弱の関係性に依存することを根拠に、[t,d]から[r]への変化を引き起こす動因を解明すると同時に、いわゆる変則活用と正則活用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

キーワード：구성원소, 내적 구성, 불규칙 활용, 자음 약화 현상, 탄설음화

## 1. 서론

외국어 교육에 있어 음운론은 발음 교육뿐만 아니라 문법 학습을 비롯하여 넓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용언 활용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변별적 자질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음운변동을 자음의 내적 구성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한국어의 음운변동을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음운규칙이 적용되었는지를 제시해야 정확한 이해와 습득이 가능하다. 특히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이른 시기에 불규칙 활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변이 규칙을 제시하여 적용 연습을 시키는 방식으로는 학습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교수자가 용언 활용에서 일어나는 음소 변화 규칙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원리까지 이해하고 학습자에게 간단 명료하게 단서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속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언 활용 교육 방식은 전통적인 규칙 제시와 적용이다. 먼저 활용 형태에 따라 어미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자

음으로 시작하는 1군 어미(-고, -지만, -게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2군 어미(-아서/어서, -았/었- 등), 어간 말 자음의 유무에 따라 모음 ‘으’가 매개되는 3군 어미(-(으)면, -(으)니, -(으)려고 등)로 어미를 정리하여 제시한다.<sup>1)</sup> 그 다음 각 어미의 용법을 학습하면서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때 ‘규칙’에 어긋나는, 즉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 있으면 거기에 특별히 유의하게 한다. 그런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불규칙 활용 학습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미 ‘-아서/어서’의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벽찬데 어간의 끝소리가 ‘ㄷ’이나 ‘ㅂ’인 용언은 어간 말 자음이 각각 다른 소리로 변하는 불규칙적인 활용을 함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어간 말에 ‘ㄷ’이나 ‘ㅂ’이 있는 용언인데도 불규칙 활용을 안 하는 ‘불규칙의 예외’도 있다고 하니 학습자의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용언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와 습득을 위하여는 음운론적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같은 형태를 가진 용언인데 규칙 활용을 하는 것과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을 구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소리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변한 모습이 왜 그 소리이어야 하는지를 학습자가 안다면 ‘불규칙’ 활용 학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다음 어간의 불규칙 활용 중에서 ‘ㄷ’불규칙을 택하여 /ㄷ/이 /ㄹ/로 변하는 과정을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겠다.

## 2. 불규칙 용언에 대한 기존의 논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일반적인 음운현상이 적용되어 어간, 어미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 반면 환경에 따라 음소와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다. ‘학교문법’과 ‘한글맞춤법’ 등 규범문법에서는 전자를 규칙 활용, 후자를 불규칙 활용 또는 변칙 활용이라고 부른다.<sup>2)</sup> 예를 들어 어미 ‘-다’, ‘-아서/어서’, ‘-(으)면’과 결합하였을 때 용언 어간의 변동을 보자.<sup>3)</sup>

- |           |              |
|-----------|--------------|
| (1) a. 받다 | a'. 받아서, 받으면 |
| b. 잡다     | b'. 잡아서, 잡으면 |
| c. 웃다     | c'. 웃어서, 웃으면 |

- |           |              |
|-----------|--------------|
| (2) a. 분다 | a'. 불어서, 불으면 |
| b. 눕다     | b'. 누워서, 누우면 |
| c. 낫다     | c'. 나아서, 나으면 |

어미 ‘-다’와의 결합에서는 (1a-c), (2a-c)에서처럼 모든 경우에 어간에 변동이 없으므로

‘다’는 모든 어간으로 하여금 규칙 활용을 하게 하는 어미라 할 수 있다. 또한 (1)의 용언들은 어미 ‘-아서/어서’와 ‘-(으)면’과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규칙 용언이다. 그런데 (1)과 똑같은 어미가 붙은 경우인데도 어간에 음운변동이 보이는 (2a’-c’)는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2a’)를 ‘ㄷ’불규칙, (2b’)를 ‘ㅂ’불규칙, (2c’)를 ‘ㅅ’불규칙이라 부른다.

이처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규범은 활용할 때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를 일정한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하는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규칙이 적용되는 어간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규칙성’과 ‘불규칙성’의 구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김진우(1971)에서는 어간에 단일한 기저형을 설정하여 불규칙성을 없애려고 하였다. ‘ㄷ’불규칙을 예로 들으면 (1a-a’)의 어간의 기저형을 ‘ㅁ-’으로 잡고 (2a-a’)의 기저형은 ‘불-’으로 잡으면 (2a’)의 ‘불어서, 불으면’에는 불규칙성이 없는 것이고, 자음 앞에서는 폐구조음원칙(閉口調音原則, principle of close articulation)<sup>4)</sup>에 의한 이형(異形)이 되면서 (2a)처럼 ‘불다’가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최명옥(1985) 등에서는 단일 어간 기저설을 비판하고 불규칙 용언에 다중 기저형을 설정한 뒤에 각각의 활용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곧 (2a-a’)의 기저형은 화자들의 심리적인 어휘부에 ‘불-/불-’ 두 개로 등재되어 있으며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환경에 따라 선택된다고 한 것이다.

위의 논의들은 결국, 어간의 기저형을 무엇으로 설정하였든지 간에 어간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규칙을 제시하였을 뿐, 음소가 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ㄷ’불규칙에서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왜 변하는지, 변한 소리가 왜 /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ㄹ/로 변하지 않은 /ㄷ/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sup>5)</sup>

[ㄷ]와 [ㄹ] 소리에 대해서 통찰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coronal]와 [+anterior]라는 변별적 자질이 있는 것과 동시에 [±sonorant]와 [±continuant]라는 자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의 의문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두 소리 간의 관계는 각 분절음의 내적 구성을 보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절음은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element)의 존재와 결합 또는 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구성원소 이론(Element Theory)<sup>6)</sup>에 기초하여 ‘ㄷ’불규칙 활용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ㄷ’ 불규칙 활용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

#### 3.1 [t, d]와 [ɾ]의 연관성

한국어의 ‘ㄷ’불규칙 활용에서 일어나는, /ㄷ/[t, d]가 /ㄹ/[ɾ]<sup>7)</sup>로 변하는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 (3) a. 호주 영어<sup>8)</sup> [ˈwɔ:tə] ~ [ˈwɔ:rə] (water: 물)  
 [ˈbadi] ~ [ˈbəri] (body: 몸)  
 b. 저지(低地)독일어<sup>9)</sup> [ˈva:tə] ~ [ˈva:rə] (water: 물)  
 [ˈbe:dn̩] ~ [ˈbe:m] (bäden: 놀다)  
 c. 민남(閩南)어<sup>10)</sup> [kʰuta] ~ [kʰura] (窟仔: 작은 구멍)

(3)의 예들은 소위 자음 약화(lenition)라 불리는 현상 중의 하나인 탄설음화(tapping)인데 [t]나 [d]가 모음 사이에서 [ɾ]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a-b)의 예는 앞 모음에 악센트가 있고 그 중에는 장모음인 것도 있다. (3.c)도 모음 사이에서 [t]가 [ɾ]로 변하는데 앞 음절에 기식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현상을 해석하는 데 먼저 [t] 또는 [d]와 [ɾ]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조음위치를 나타내는 구성원소로, 모음을 구성하는 원소와 동일한 | I |, | U |, | A |를 설정하였는데 설정성(舌頂性)을 가진 치조음(齒莖音)인 [t, d]는 전설고모음 [i]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여 | I |를 가진 것으로 본다.<sup>11)</sup> 거기에 조음기관의 폐쇄를 나타내는 원소 | ? |가 함께 있으면 [b]로 실현되고, 기식의 소음성을 나타내는 | H |를 더하면 [t] 소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탄설음 [ɾ]는 내적 구성에서 | I |가 자음 위치를 독자적으로 차지할 때 나는 소리이다.<sup>12)</sup> 이것은 [t, d]가 그 내적 구성원소로 [ɾ]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t, d]에서 어떤 구성원소가 제거되면 [ɾ]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2.a)의 한국어 ‘ㄷ’불규칙 활용과 (3)에서 본 [t, d]가 [ɾ]로 변하는 현상은 모두 [t, d]가 내적 구성에서 | ?, H |를 잃은 결과라 할 수 있다.

$$\begin{array}{ccc}
 \text{(4)} & \begin{array}{c} \text{x} \\ | \\ | \text{ I } | \\ | \text{ ? } | \\ | \text{ H } | \end{array} & \begin{array}{c} \text{x} \\ | \\ | \text{ I } | \\ | \text{ ? } | \end{array} & \begin{array}{c} \text{x} \\ | \\ | \text{ I } | \end{array} \\
 & [t] & / & [b] & \rightarrow & [ɾ]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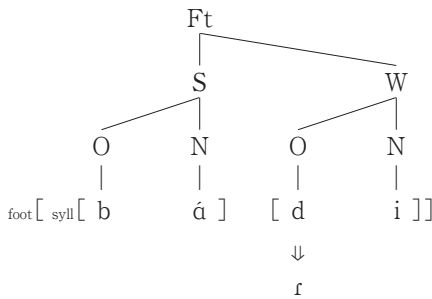
### 3. 2 자음 약화 현상

자음 약화 현상이란 구성원소를 상실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음운 구조에서는 영역마다 음운론적으로 강한 위치와 약한 위치가 있는데<sup>13)</sup> 약한 위치에서는 내적 구성원소를 보유하는 힘이 약하여 구성원소를 잃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소리로 실현이 되는 것이 자음 약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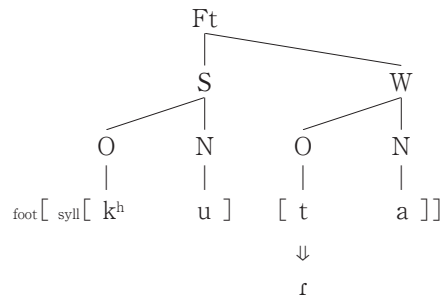
(3)의 예는 [t, d]가 모음 사이에 있을 때 [ɾ]로 발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t, d]가 있는 위치가 약해서 약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모음 사이라는 음절 구조적 요소와 더불어

어 음를 구조적으로도 약한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쉽다. 음절의 강약 차이는 음를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강한 음절과 약한 음절이 하나의 쌍으로 음보(foot)를 이룬다. 강한 음절이라 하면 악센트가 없이는 음절 또는 기식음을 포함하는 음절이다. 또한 분기 구조를 지닌 분절음을 가진 음절도 강하다.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고조 악센트를 가진 모음과 기식성을 가진 자음은 같은 구성원소 | H |를 가진다고 본다.<sup>14)</sup> 그리고 장모음은 음절핵 위치에서 분기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3.a-b)는 앞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예인데 (5)에서 악센트가 있는 강한 음절과 뒤 음절이 음보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c)는 기식음이 포함되는 예인데 마찬가지로 (6)처럼 왼쪽에 강한 음절을 둔 음보를 이룬다. 음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오른쪽 음절은 약화의 대상이 되어 구성원소를 상실하게 된다.

(5) [ˈbadi]→[ˈbə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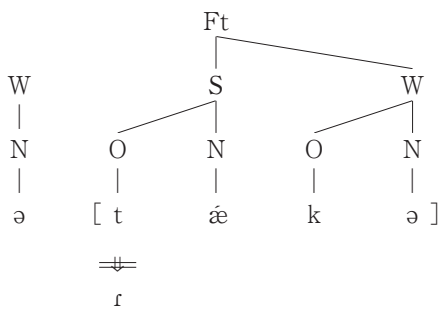


(6) [kʰuta]→[kʰura]



자음 약화 현상이 강한 위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에서 (3.a)와 같이 모음 사이에서 [t, d]가 약화됨을 보았는데 ‘attacker’[əˈtækə]에서는 모음 사이에 있는 [t]가 약화되어 \*[əˈrækə]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그 자음이 음보 영역에서 약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7) [əˈtækə]



### 3.3 한국어의 ‘ㄷ’ 불규칙 활용

이제 한국어의 소위 ‘ㄷ’ 불규칙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해보겠다. (8)은 한국어 용언에서 어간 말의 /ㄷ/이 어미 결합의 결과로 모음 사이에 있게 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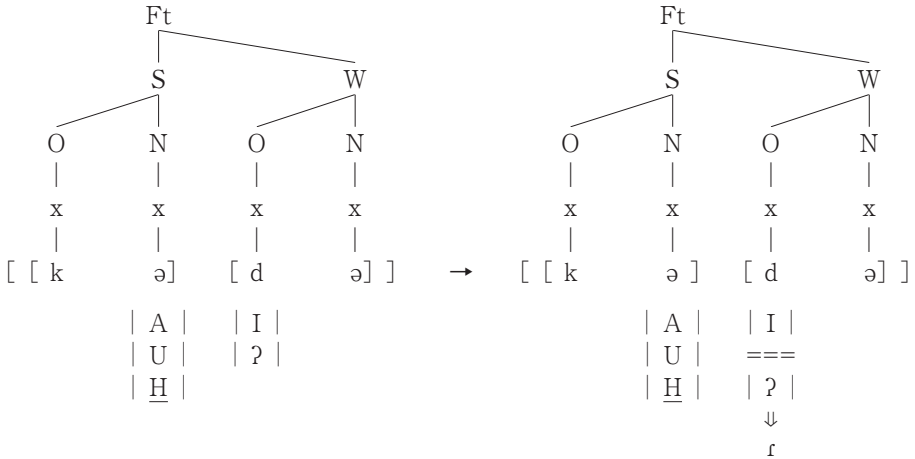
- (8) a. 걷(步) + 어서 [kəd] + [əsə] → [kəəsə],    걷 + 으면 [kəd] + [imjən] → [kəimjən]  
       묻(問) + 어서 [mud] + [əsə] → [murəsə],    묻 + 으면 [mud] + [imjən] → [murimjən]  
       신(載) + 어서 [ʃid] + [əsə] → [ʃirəsə],    신 + 으면 [ʃid] + [imjən] → [ʃirimjən]  
   b. 걸(収) + 어서 [kəd] + [əsə] → [kədəsə],    걸 + 으면 [kəd] + [imjən] → [kədimjən]  
       묻(埋) + 어서 [mud] + [əsə] → [mudəsə],    묻 + 으면 [mud] + [imjən] → [mudimjən]  
       믿(信) + 어서 [mid] + [əsə] → [midəsə],    믿 + 으면 [mid] + [imjən] → [midimjən]

(8a)에서는 어간 말의 자음이 모음 사이에서 [ɾ]로 변하는데 반에 (8b)에서는 어간 말 자음이 모음 사이에서도 원래 음가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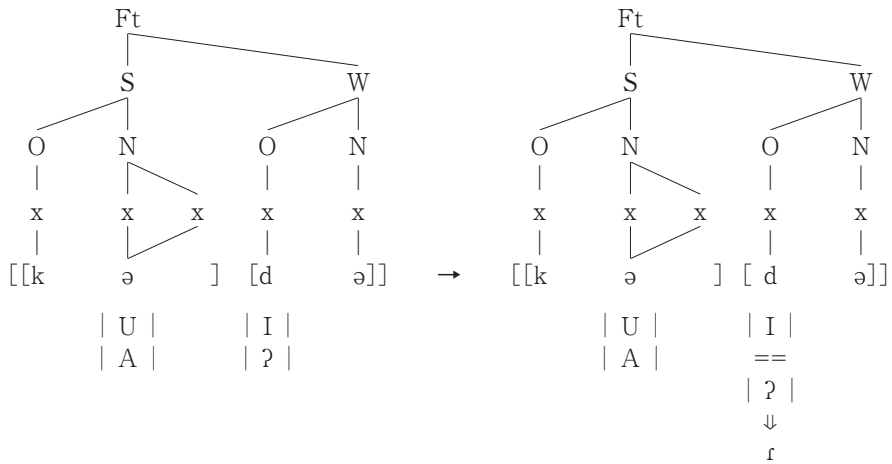
(8a)와 (8b)의 차이는 성조(聲調)와 음장(音長)과 관련이 있다. 중세 한국어는 성조 언어로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였는데, 저조(low)를 띤 평성(平聲)과 고조(high)를 띤 거성(去聲), 그리고 상승조(raising)를 지닌 상성(上聲)이 있었다. (8a)처럼 활용에서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용언은 통시적으로 볼 때 상성 모음을 가진 반면 (8b)의 어미 앞에서도 음운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용언의 어간은 통시적으로 평성을 가진 것이었다.<sup>15)</sup> 즉 (8)의 용언들을 보면 원래 어간에 고조 악센트를 지닌 모음 뒤에서만 약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한국어에 와서는 성조가 음장 차이로 바뀐 통시적 변화 속에서 상성 모음이 장모음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조 악센트로 실현되는 | ㅏ |를 가진 음절이 음보에서 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분기 구조를 가진 장모음 음절 또한 강하다.<sup>16)</sup> 어미와의 결합으로 어간 말 자음은 어미의 모음과 함께 앞 음절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게 되어 약화를 겪는다.

(9) a. [ˈkəd] + [-ə] → [kər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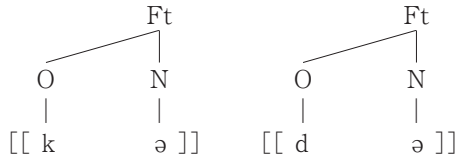
b. [kəd] + [-ə] → [kərə]



(9)는 용언 ‘걷다(歩)’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었을 때 음보 영역에서 앞의 강한 음절로 인해 /ㄷ/이 약화의 대상이 되어 구성원소 | ʔ |를 잃은 결과 [r]로 실현되어서 ‘걸어’가 됨을 보여 준다. (9.a)처럼 성조를 가진 음절이 앞에 있을 때나 (9.b)처럼 앞 음절이 장모음일 때나 뒤 음절의 자음이 /ㄹ/로 약화되는 환경임은 마찬가지이다.<sup>17)</sup>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어에서 성조와 모음의 장단이 음운론적으로 변별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으나 음운변동이 일어난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8.b)에서 원래 평성으로 악센트를 지니지 않았던 어간 말 자음 /ㄷ/이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데도 약화되지 않는다. 악센트가 없으므로 통시적으로도 장모음으로 변한 일이 없었던 것들이다. 이는 어간의 음절이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 [kəd] + [-ə] → [kədə]



(10)은 용언 ‘걷다(収)’의 어간과 ‘-어’가 결합한 활용형 ‘걸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미의 모음으로 인해 어간 말의 자음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는데 앞 음절에는 강한 요소가 없다. 그러므로 음보가 형성되지 못하고 약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sup>18)</sup>

#### 4. 결론

한국어의 소위 ‘ㄷ’불규칙 활용에서 보이는, /ㄷ/이 /ㄹ/로 변하는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자음 약화 현상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자음 [t, d]가 앞 음절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게 될 때 내적 구조에서 구성원소를 잃게 되어 [ɾ]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규칙 활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자음이 변이하는 음운 규칙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복수의 어간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sup>19)</sup>, 그리고 활용형 자체를 규칙 용언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암기하도록 하는 방법<sup>20)</sup> 등이 제안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에서도 학습자들이 흔히 갖게 되는 “왜 그렇게 변하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ㄷ/이 변이한 모습이 /ㄹ/인 이유는 두 소리가 내적 구조에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활용으로 인한 음절의 재구성으로 약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에게는 ‘불규칙’성의 원인을 모르는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는 활용 형태를 두고 어느 쪽이 ‘규칙’ 활용이며 어느 쪽이 ‘불규칙’이나 하는 논의조차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소위 ‘불규칙’ 활용 중 ‘ㄷ’불규칙과 ‘ㅅ’불규칙에서도 같은 원리로 소리의 변이가 일어남을 안다면 복잡해 보이는 불규칙 활용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ㄷ/이 /ㄷ/가 되는 변이와 /ㅅ/이 청각적인 소리를 잃게 되는 현상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자음 약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 하겠다.



注

- 1) 허용 외(2005)에서는 어미의 종류를 나누는 데 1군 어미, 2군 어미, 3군 어미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이에 대해 이용(2013)에서는 어미의 형태에 주목하여 “이것들을 1군 어미, 2군 어미, 3군 어미로 굳이 다른 이름을 줄 필요도 없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그냥 간단하게 ‘자음 어미군’으로 줄여 부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음 어미군’, “으’ 계열 어미군’으로 줄여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용, 2013: 180)라고 하였다. 熊谷明泰(2011/2015)에서는 활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에 주목하여 ‘單一型’, ‘아/어交替型’, ‘으媒介型’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어미군과 결합하는 양상에 다른 분류라는 것이다.
- 2) 학교문법의 관점에 대하여 이관규(1999/200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용언이 활용할 때에 대부분의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 한다. 이에 비해서 일부의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 한다.”(이관규, 2003: 160) ‘한글맞춤법’에서는 불규칙 용언과 관련된 표기 원칙에 대해 서술하면서 “(불규칙 용언들은)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였다 (한글맞춤법, 1988: 제18항).
- 3) 前間恭作(1924/1974), 河野六郎(1952/1979) 등에서는 어미를 변화하지 않은 부분, 어간을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소위 어간을 어기(語基)라고 부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본문 (1a)의 예에서는 ‘받-’ ‘받아-’ ‘받으-’가 소위 어간이며 어미는 각각 ‘-다’ ‘-서’ ‘-면’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을 어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어미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 4) 김진우(1971: 2)에서는 폐구조음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폐구조음원칙이란 받침규칙에 의한 한국어 특유의 내파(內破)현상으로, 좁은 의미에서 파열음들이 어말이나 자음 앞 등 특정한 위치에서 파열하지 않음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파찰음, 마찰음들이 같은 위치에서 동위의 미파열음(未破裂音)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음절 말이나 자음 앞 등 음운론적으로 약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음 약화 현상이며 많은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위치의 강약 관계와 자음 약화 현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다루어져 있다.
- 5) 실제로 이기문·장소원(1994: 158)은 중세 국어의 예를 들으면서 “‘ㄷ’이 ‘ㄹ’로 교체된 것은 어떤 자질에 말미암은 것인지 확실치 않다.”라고 하였다.
- 6) 구성원소 이론(Element Theory)에서는 분절음 구조를 구축하는 최소 요소로 구성원소를 설정하여 각각의 분절음은 이들 구성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거나 결합 또는 합성해서 청각적인 소리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Harris, 1994). 최신 이론에서는 6개 구성원소를 설정하여 그것으로 모음과 자음을 포함한 모든 분절음 구성을, 음운론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Backley, 2011).
- 7) 한국어의 음소 /ɾ/은 두 가지 이음을 가지는데 하나는 모음 사이에서 발음되는 탄설음(彈舌音: tap) [ɾ]이고, 음절 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설측음(舌側音: lateral) [l]로 발음된다. 한국어 유음은 발음기호 ‘r’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학적으로는 [r]는 연탄음(連彈音: trill)를 나타내는 한편 한국어의 /ɾ/은 탄설음 [ɾ]이며 다른 언어의 자음 약화 현상에서 실현되는 소리와 동일하다.
- 8) 영어의 예는 Carr(2013)에서 인용.
- 9) 저지독일어의 예는 Backley(2011)에서 인용. 저지(低地)독일어(Niederdeutsch)란 북부 독일어라고도 불리는 언어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 지방에서 사용되는 독일어이다. 게르만어로부터 추이하는 과정에서 [p,t,k]가 어두나 자음 앞에서 파찰음이 된 고고(古高)독일어(Althochdeutsch)와 달리 파열음 음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 10) 민남어의 예는 Backley(2011)에서 인용. 민남(閩南)어란 중국 福建省 남부 지방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이다.
- 11) 구성원소 이론에서 분절음을 구성하는 구성원소를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소리의 음운론적 행동이다. 한국어 /ㄷ/의 구성을 | I |를 가진 것으로 분석한 이유는, 한국어에서 j계 이중모음

- 이 전설모음 앞에 안 나타나는 것처럼 치조음이나 경구개음 앞에서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Backley, 2011: 73). 한국어의 치조음과 경구개음이 전설모음과 j계 이중모음과 같은 | I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란히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12) Backley(2011: 133)에서는 [ɾ]가 자음 위치에 | I |로 구성된 소리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영어의 자음 약화 현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GA(General American)와 아일랜드 방언, 호주 방언에서는 탄설음화(tapping)가 일어나는데 영국 영어나 웨일즈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약화 현상으로 “get it”[geɪt]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 이러한 음운 현상에서 탄설음 [ɾ]의 내적 구성은 | I |, 접근음(接近音) [ɹ]은 | A |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13) 음운론적 위치의 상대적인 강약은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약한 위치에 있는 분절음은 흔히 동화나 약화 현상의 대상이 되는데 예컨대 음절 구조에서는 한국어의 자음군 단순화와 같이 자음 실현에 제한이 있는 음절 말 위치는 음절 초 위치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음절 구조에서도 음보(foot) 영역의 왼쪽 위치에는 악센트가 없힐 수 있는데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h, ʔ]로 약화되거나 음소가 소멸되는 일이 있다.
- 14) 악센트와 기식음은 음성학적으로도 음운론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음성학적으로는 한국어의 기식음이 일본어 등 성조 언어 화자에게는 고조로 들린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음운론적으로는 칸무어(Kammu)의 북쪽 방언에서 기식음이 변이형으로 고조 악센트를 지닌다([tʰaan]→[tʰaan]/[daan]→[taan])는 예를 볼 수 있다 (Backley, 2011: 143).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고조 악센트를 가진 모음과 기식음이 둘 다 내적 구성에서 | H |를 가진 것으로 본다 (Backley, 2011: 134, 143).
- 15) 중세 한국어를 보면 개별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는데 점을 찍지 않는 것이 평성, 점을 하나 찍는 것이 거성, 그리고 점을 두 개 찍는 것은 상성이다. (8)에 예시된 용언들은 중세 한국어 자료에 각각 ‘걸·다(步), :걸·다(収), 묻·다(問), :묻·다(埋), 싣·다(載), :믿·다(信)’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16) Harris(1990: 274)에서 주장한 “복잡성 조건(Complexity Condition)”에 근거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분절음은 다른 분절음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음운현상의 동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17) 남기심·고영근(1985/1993: 141)에서는 ‘ㄷ’불규칙 용언의 음장(音長)을 언급하면서 뒤에 모음 어미가 와서 불규칙 활용을 일으키면 그 음장이 소멸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선정(2002)에서는 ‘ㄷ, ㅌ’불규칙 활용을 지배음운론의 지배관계와 승인원리로 해석하며 장모음을 구성하는 골격점 하나가 적정지배를 받았으므로 소리 나지 않고 단모음으로 실현된다고 분석하였다.
- 18) 모음 앞에서도 /ㄷ/로 변하지 않은 ‘규칙’ 용언 중 ‘얼다’는 어간이 상성을 지니던 용언이다. 그런데도 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며 ‘얼다(凍)’의 활용형과 중복되는 일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음운론적 관점에서 앞 음절의 두음(onset) 자리가 비어 있어 음절의 복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음절이 되지 못하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듣다’는 통시적으로 성조를 지니지 않았는데 /ㄷ/로 변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이 경우는 어간의 모음 /ㅡ/가 가진 특수성, 즉 어떠한 음운론적 정보를 가지지 않는 빈 핵에서 실현되는 소리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하겠다.
- 19) 대표적인 것으로 석주영(2002)이 제안한 방안이 있다.
- 20) 김영선(2009)에서는 음운규칙 제시 방법과 두 가지 형태의 어간을 암기시키는 방법을 서로 다른 반에서 실시하여 정확한 활용 습득의 효율성을 시험하였는데 통계적인 결과로는 두 학습 방법의 우월성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参考文献

- 기세관 (1994) 「國語 不規則 語幹의 形態論과 音韻論」 『한국언어문학』 32, 한국언어문학회.
- 김선정 (1996) 「개정지배음운론개관」 『언어학』 19, 한국언어학회.
- 김선정 (2002) 「한국어 음운현상에 나타난 결합 작용과 분해작용—지배음운론적 접근—」 『언어학』 69, 한국언어학회.
- 김영선 (2009) 「한국어 불규칙 용언의 교수 방법 연구」 『우리말연구』 25, 우리말학회.
- 김진우 (1971)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關하여」 『韓國言語文學』 8-9 合併號.
-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탐출판사.
- 민현식 (1991) 「학교문법의 불규칙 활용 교육에 대하여」 『선정어문』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석주연 (200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불규칙 용언의 교수 방법 연구」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 이관규 (1999/2003)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기문 · 장소원 (1994) 『국어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이용 (2013) 「유추를 이용한 불규칙용언 교육 방안의 모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조남민 (2002)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불규칙 용언에 관한 분석」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 최명옥 (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국어학회.
- 허용 (2008) 「중간언어 음운론을 위한 자음 연구」 『한국어 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허용 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熊谷明泰 (2011/2015) 『アリラン』 朝日出版社.
- 窪園晴夫, 太田聡 (1998) 『日英語比較選書10 音韻構造とアクセント』 研究社.
- 河野六郎 (1955/1979) 「朝鮮語」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 秋美鎬, O'Grady, W., 山下佳江 (2008) 『韓国語発音ガイド—理論と実践』 白帝社.
- 田中伸一 (2005) 『英語学モノグラフシリーズ14 アクセントとリズム』 研究社.
- 前間恭作 (1924/1974) 「龍歌故語箋」 『前間恭作著作集』 下卷, 京都大学国文学会.
- Backley, Phillip (2011)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arr, Philip (2013)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Blackwell Publishing.
-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07) *An Introduction to Language*, Wadsworth Cengage Learning.
- Harris, John (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2, 255-300.
- Harris, John (1994) *English Sound Structure*, Blackwell Publishing.
- Heo, Yong (1994) *Empty Category and Korean Phonology*, Ph. 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 Kaye, J. D., Lowenstamm, J. & J.-R. Vergnaud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 Kim, SeonJung (1996) *The Representations of Korean Phonological Expressions and Their Consequences*, Ph. 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 Ladefoged, P., Johnson, K. (2001) *A Course in Phonetics*, Wadsworth Cengage Learning.
- Rhee, SangJik (2002) *Empty Nuclei in Korean*, Ph. 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Trecht: LOT.
- Roach, Peter (1983/2009)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A practical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